



주고 싶은 마음

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?
심지어는 원통
동작 세게도 원통 오가야 세게도 선물
원통이라 부르지마
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?
침몰이 없애
사물 마음을 살피게 하였으면
이산이 아니라도
원통이라 부르지마
선물은 제 것이 없다



가을

살은 가을엔
세월은 살다
모든이에게
이 길에 살을 살기 주려
흔들 흔들 주려
물결 주려
사치주의성
환해나
가만 해나가 주려 주려



상정 신계남 작



장미숙님의 시는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 쓴 시다. 시를 쓰는 일이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일이라는 것을 장미숙님은 이미 알고 있다. 시의 그릇에 담긴 장미숙님의 고단한 삶의 언어는 진솔하고 정갈하고 감동적이다.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자신을 사랑해야만 평화와 행복을 얻을 수 있으므로 앞으로도 장미숙님께서 시를 통해 더욱 자신을 사랑하시길 바란다.

- 정호승 (시인)

장미숙 시집

잃어버린 마음을 찾아서

매일

눈물나게 외롭고 아팠던 내 마음

잃어버린 마음을 찾아서

장미숙 시집

매일



장미숙 (프란치스카)

- 1960. 10. 11 일생
- 해평중학교 졸업
- 대구정화여자고등학교 졸업
- 성경통신대학 졸업
- 구미 미래로 병원 입원 중
- 구미 보천다회 졸업
- 2023. 12. 27 프란치스카로 세례받음.